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 수업 준비과정과 적용을 위한 과제 연구

한경미(한신대학교 / 겸임교수)

hkmiah@hanmail.net

한글 초록

신앙교육은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성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메시지가 삶으로 구현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교육은 성서 메시지가 삶으로 구현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신앙교육이 성서의 경험과 인간 삶의 경험과 만나도록 안내하는 대신 성서 내용 자체를 알게 하는 데 주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회교육은 삶의 변화와 실천보다 개인의 내면 신앙을 강조하며 사후 천국을 준비하고, 개교회 교인을 위한 훈련과 양적 성장을 위해 대부분 할애되었다. 그 결과 코로나19 시대에 개신교인들은 개교회의 안위만을 신경 쓰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고,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상실되고 말았다. 따라서 신앙교육은 성서의 메시지가 삶으로 구현되기 위해, 성서의 경험과 학습자의 경험이 만나 하나님 앞에 삶으로 응답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신앙교육을 교회교육 현장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색하고자 필자는 독일 개신교 루터파 바이에른 노회가 편찬한 “경험과 관련된 종교 수업 준비 (Religionsunterricht Vorbereiten)”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험과 관련된 종교 수업 준비는 다섯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만남, 신학적 방향 설정, 교수학적 방향 설정, 교수학적 결정들, 진행계획 정리이다. 이 과정의 주요 목적은 성서의 신앙인들이 자기 삶의 경험을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는지 '바라보는 관점'을 학습하는 것이다.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은 성서 교수법 중 하나가 아니라 신앙교육의 본질

을 다루고 있다. 교육의 장이 현실 세계에서 가상세계까지 확장해가는 사회 변화 속에 있지만, 신앙교육의 본질적인 성격은 바뀔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에 관한 연구와 적용은 성서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구현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삶의 방향전환, 성서 경험과 만남, 신앙교육, 수업 준비, 성서 교수학

I. 들어가는 말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신앙교육은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메시지가 삶으로 구현되게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나름대로 신앙교육을 했다고 자평하지만, 코로나 19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 실현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기보다 사후 천국을 준비하고, 개교회 교인 양성 및 봉사자 훈련, 성서 내용 자체를 전달하는 교육에 머물러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김태원(1996)은 '한국교회의 교육 방법론 개혁에 관한 소고'에서 성경 지식을 학습자에게 주입하는 교육방법이 한국교회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신앙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 학습자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신앙교육을 주입식으로 할 때 문제점은 성서의 메시지와 신앙의 의미를 사고하고 삶에 적용하기보다 정답처럼 암기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는 정답 외에 타인의 다른 사고와 의견을 부정하는 독단과 독선의 태

도를 보이기 쉽다.

필자가 노회 및 교회 교사교육을 통해 만난 다수의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들은 신앙교육이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된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동의하였다. 문제는 어떻게 실행하는가였다.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자인 그들은 대부분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세대들이었기에 학습자 중심의 ‘경험과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학습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막연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이들을 위해 교회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준비를 위한 안내와 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였다. 이러한 계기로 필자는 바이에른(Bayern)주의 개신교-루터파의 지원으로 포이치크와 하르츠(Foitzik & Harz)이 집필한 “경험과 관련된 종교교육 수업 준비”(Religionsunterricht Vorbereiten) 모델에 착안하여, 한국교회 현장에 신앙교육을 위한 수업 준비를 위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험과 관련된 종교교육 수업 준비 모델은 교회교육 현장에서 교역자의 설교 및 공과 준비만이 아니라 신학생에게 교회교육 현장 실습을 준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Religionsunterricht Vorbereiten은 독일에서 종교교사 지망생의 교육실습을 돕기 위한 안내서이다. 이 책의 서문은 경험과 관련된 종교교육 수업 준비 모델은 초보자에게 통찰력을 제공하고, 수업 준비 실천 능력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Foitzik & Harz, 1992, 7). 따라서 이 모델을 한국교회와 신학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실제적인 수업 능력을 갖추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II. 본론

1.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베르그(Berg, 1991, 15-20)는 오늘날 성서의 메시지가 삶을 변화시킬 만큼 영향을 끼치지 못함으로써 성서의 역할이 점차 상실해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성서가 신학과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뿐,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경험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원영(2005, 101)에 따르면, 신앙교육을 위한 수업은 인간의 전인적 활동을 포함하여 성서에 대한 지식, 믿음, 정서, 경험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연관된 초월적 실재(하나님)와의 역동적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생활 양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앙교육은 학습자의 삶의 양식을 다루기에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일상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신앙교육이 '경험과 관련되다'라는 것은 학습자의 경험과 성서 속 신앙인의 경험이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만남을 의도하는 신앙교육은 신앙인들이 자기 삶의 경험을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는지, 신앙인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학습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을 성서를 가르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윤화석(2014)은 우리가 성서 교수학을 단지 성경 공부를 위한 방법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성서 교수학의 이론을 위한 전제가 바로 성서 해석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새로운 지평의 개방, 즉 학습자의 경험과 연관된 교수-방법적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볼 때,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은 성서의 메시지를 오늘날 삶의 경험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가장 본질적인 성서 교수학적 적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이 한국 교회교육 현장에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성서 속 사건과 인물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성찰하는 능력은 제임스 파울러(Fowler, 1992, 205, 216)의 신앙발달론에서 3단계인 '통합적-관

습적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을 넘어 4단계인 '개별적이고 성찰적 신앙(Individuative-Reflective Faith)'으로 나아가 가능하다. 통합적-관습적 신앙의 교회 구성원은 암묵적 신앙 형태를 가지면서 신앙전통과 교회에 순응하는 자세를 가진다. 여기서 4단계로 나가려면, 성서적 관점에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고, 사회체제와 제도들과 자신의 의미체계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포이치과 하르츠(Foitzik & Harz, 1992, 94)는 성서가 경험의 축적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성서의 인물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들과 갈등들을 바로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교육에서 성서를 가르친다는 것은 성서의 인물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 속에 신앙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는지, 그들은 경험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는지 등 '경험을 바라보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 사회체제와 제도들 등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안내한다.

둘째, 학습자가 삶의 경험을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성찰한 후, 더 나은 삶의 경험을 위해 재구성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우선, 성서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이며, 두 번째는 개인의 문제와 연결된 사회의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 의지를 길러주는 것이다.

이처럼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은 기독교적 사고와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한다. 포이치과 하르츠(1992, 14)가 제시하는 '경험과 관련된 종교교육'의 교육목적 네 가지는 복음적 교육론, 해석학적 종교교육론, 주제 및 문제 지향적 종교교육론, 치유적 종교교육론의 핵심을 포괄하고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양육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1. 종교교육은 우리 시대 질문들, 어려움들, 도전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대답을 찾도록 한다.
2. 종교교육은 기독교 전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3. 종교교육은 학생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 안에서 성숙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삶에 도움(Lebenshilfe)을 주어야 한다.
4. 종교교육은 기독교 전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 시대의 사람에게 말해야 한다.

네 가지 교육목적의 주요 관심사는 ‘학습자가 기독교 신앙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 중심의 교육과 주제 중심의 교육 사이에서 양자택 일하는 것을 극복하게 한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사는 삶의 현실에 치중하거나 성서적, 교회전통에 강조하는 것을 거부한다. 포이치크와 하르츠(1992, 15)는 삶의 현실에 치중할 경우, 경건하게 꾸며진 사회과목이 되며, 성서적, 교회전통만을 강조할 경우, 무의미한 기독교적 계토(Getto)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식적으로 “성서와 현재 상황이 만나는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교육자는 주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계획될 수 없고, 마음대로 처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일상적인 경험들, 기본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현실에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학습자가 경험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갖고 신앙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Foitzik & Harz, 1992, 15).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자는 학습자가 어떤 관점에서 타인의 삶을 해석하는지, 자기 삶은 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관찰되는지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다.

2.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의 만남의 형태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경험영역들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만남의 결과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만남의 결과에 따른 교육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신앙을 실천한 이들(또는 성서의 인물들)의 사례가 학습자가 사는 삶의 현실에 투영되어 자기 삶을 더욱 분명하게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만남이다. 이 만남은 학습자의 경험과 신앙을 실천한 이들의 사례가 공통 맥락이 있기에 학습자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만남은 학습자가 경험한 것들을 인식하고 심화하며 특징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학습자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을 실천한 이들의 낯선 경험’과의 만남이다. 여기서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경험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체험하고, 체험된 것을 자신들의 관점들 및 삶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확인한다. 이 만남은 새로운 경험을 열어주고, 새로운 관점을 규명하고, 신앙을 개척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셋째, 학습자들이 경험한 것과 대조되는 경험들(Kontrasterfahrungen)을 만나는 것이다. 이 만남에서 학습자는 반발(Widerstände)이 일어난다. 학습자는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만남은 경험을 다르게 해석하는 관점들이 만나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다. 수업에서는 이 반발을 주제로 다루면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기독교적 관점의 차이를 발견한다(Foitzik & Harz, 1992, 18-20).

이외에도 신앙의 사례와 학습자의 삶의 현실들 사이의 만남에서 학습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만남의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자는 성서 본문들과 주제들을 가지고 준비할 때, 학습자에게 어떤 만남이 발생할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은 어떤 만남의 형태가 있을지 어느 정도 예측하며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

다섯 과정, ‘개인적인 만남’, ‘신학적 방향 설정’, ‘교수학적 방향 설정’, ‘교수학적 결정들’, ‘진행계획’을 통해 준비한다. 필자는 이러한 다섯 과정 중에서 ‘개인적인 만남’, ‘신학적 방향 설정’, ‘교수학적 방향 설정’에서는 성서 본문이 중심이 되는 학습과 주제가 중심이 되는 학습으로 나누어 그 특징에 따라 교육자가 준비해야 할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다.

3. 경험에 관한 신앙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다섯 단계

1) 개인적인 만남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은 ‘개인적인 만남’ 단계에서 교육자가 먼저 성서의 인물, 또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명백하게 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개인적 의견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핀들리 에지(Edge, 1994, 84)는 성서는 단순히 연구하고 암기하고 학습하는 책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책이라고 강조하였다. 교육자가 성서의 경험을 만나도록 의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자 자신이 먼저 성서의 경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육자는 성서 본문이 중심이 되는 학습이든, 주제가 중심이 되는 학습이든, 성서 본문과 자신의 경험을 관련지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 의견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교육자 자신이 먼저 성서 본문 또는 삶의 주제와 ‘만남’을 통해 학습자의 신앙적 관점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함으로써 수업내용 전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에 집중하게 한다. 만일, 교육자가 수업 준비를 할 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로 시작할 경우, 성서 본문 속에서 학습자의 경험과 삶이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자가 먼저 ‘이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과 경험을 떠올리며 접근한다면, 학습자에게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학습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만남’ 단계에서 교육자의 주요 과제는 “무엇을 가르

칠 것인가?”가 아니라 “성서 본문, 또는 주제는 교육자인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다.

(1) 성서 본문이 중심이 되는 경우

성서 본문이 중심이 되는 경우, “본문 안에 전승된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신을 본문 안에 전승된 사건 안으로 개입시켜 자기 경험과 느낌을 떠올린다. 그리고 본문 안에 전승된 사건과 만남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나의 의견을 정리한다. 포이척과 하르츠(1992, 29)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면서 의견을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

- 1) 본문 안에 전승된 사건은 내가 지금까지 이해한 하나님, 신앙 등과 상통하는가? (인지적 측면)
- 2) 그것은 나의 어떤 느낌과 입장을 화제로 삼는가? (정서적 측면)
- 3) 그것은 나의 행동을 위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행동적 측면)

개인적인 만남에서 떠오르는 여러 상황은 성서교재에 도입 부분과 흡사하지만, 주제와 관련한 흥미 유발이나 집중하게 하는 것 이상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 교육자가 수업 준비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성서 본문과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의문과 당혹감, 또는 어떤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지 등을 예측하여 학습할 수 있는 주제와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으며, 교육자와 학습자가 성서 본문을 중심으로 서로 공감하는 상황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2) 주제가 중심이 되는 경우

주제가 중심이 되는 경우에서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려면, “나는 그 주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주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포이척과 하르츠(1992, 85-87)는 이러한 정리를 위해 4가지를 실행할 것을 제시한다.

첫째, 신앙교육자인 내가 먼저 어떤 시각으로 이 주제를 보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나는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 주제와 만났는지, 그 주제는 간접적으로 나와 관련되어 있는지, 그 주제에 대해 어떤 느낌이었는지 당혹감이 나 반발 등 나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대면하는 문제들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의시킨다. 즉,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교육자의 관점, 때론 선입견과 편견이 무의식적으로 수업의 척도가 되거나 학습자에게 그 관점을 주입하지 않으려면, 교육자 자신이 먼저 어떤 시각으로 그 주제를 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제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당시 어떤 문제 제기와 견해들이 있었는지, 신학적 관점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정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반된 신학적 관점들이 있다면 그 견해들이 어떤 관점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나와 상반된 견해에 대해 그리고 학습자 중에서 서로 상반된 관점이 있을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그동안 나의 입장은 변화가 있었는지, 나와 다른 견해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정리한다. 나와 다른 이들의 ‘바라보는 방식들’을 비교하고, 신학적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들을 숙고함으로써, 나의 관점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바라보는 방식들’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그 주제를 사실에 적합하게 판단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한다. 예를 들어 필자는 신학대학 강의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주제로 신학생들과 이 4가지 방향을 실습해 보았다. 학생들은 장애인 이동권이 우리 사회 안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어렵듯이 알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지하철 안에서 시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현황, 장애인 이동과 관련된 법규, 장애인 협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정부의 대책 방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신학적 방향 설정

신학적 방향 설정은 신앙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는 성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은 신앙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슈나이더스(Schneiders, 1999, 55)는 성서의 권위가 무조건 복종하게 하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 곧 대화를 수반하는 ‘관계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서의 권위는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 필요하고 적합한 것만 말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 큰 상황, 곧 정의, 평화, 생명 보전을 위한 것,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어 억눌린 자들의 권익이 동기가 되어 해석되고 전달된다(주인옥, 2008). 즉,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신학적 방향 설정’ 단계는, 성서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의 권위 아래 오늘날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하여 성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신학적 방향 설정에서 주요 과제는 이전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해석이 필요한 문제영역들을 주석 및 본문과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활용하여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교육자는 이 단계에서 ‘개인적인 만남’에서 명백해진 교육자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왜곡된 의견이나 편견, 관점을 확인한다. 이 과정은 체계적인 신학적 검토 작업인 만큼 신학 초년생 또는 평신도 교사가 작업하기에는 쉽지 않기에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1) 성서 본문이 중심이 되는 경우

포이척과 하르츠(1992, 30)는 성서 본문이 중심이 되는 수업에서 신학적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 ‘저자의 의도’와 ‘성서 증언의 중요성과 영향’을 파

악할 것을 제시한다. 먼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본문 분석은 세 가지로 진행한다. 첫째는 본문의 통일성 검토, 둘째는 언어적 형태(고백, 정보, 비유, 보도, 전설, 역사적 묘사, 지혜, 책략 등)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것, 셋째는 본문의 주요 개념들과 사실적 연관 관계들(본문의 인물들, 시대, 장소의 언급이 명확한지, 신학적 개념들이나 이미지들, 비유들, 관념들)에 설명이 필요한지, 주변 환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포이척과 하르츠(1992, 49-50)는 이러한 분석을 한 후 저자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에 따라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는 독자에게 어떤 통찰과 표상을 전달하기를 원하는가? (인지)

저자는 어떤 느낌과 입장을 화제로 삼는가? (정서)

저자는 어떤 행동 방식들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가? (실천)

*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질문한다.

저자는 그의 독자가 체험한 경험을 화제의 실마리로 삼고 있는가?

저자는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을 원하는가?

저자는 반발을 일으키는 것들과 맞서고 있는가?

포이척과 하르츠(1992, 51-53)는 '성서 증언의 중요성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본문의 사건은 성서 전체의 증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그 본문은 어디에서, 어떻게 계속 영향을 끼쳤는지, 성서와 교회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은 이들은 누구인지, 예술계나 예식, 특별한 종파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본다. 셋째, 파악된 결과들이 교육자와 학습자에게 어떤 더 큰 신학적 맥락 안에 있는지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자는 개인적인 의견에 변화가 있는지, 이 단계에서 입증하거나 보충, 혹은 교정하는 암시들을 끌어낼 수 있는지 검토한다. 만일, 신학적 방향 설정의 결과가 '개인적인 만남' 안에서 의식되

었던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면, 내용을 재검토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나 큰 차이를 보인다면, 어떤 사고와 관점에 충돌이 있는지, 그 원인과 어떤 사고의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살펴본다. 이것은 교육자의 관점을 확장 하면서 동시에 수업에서 학습자의 관점이 어떻게 확장되고 변화될 수 있는지 학습 가능성을 유추하는 것이다.

(2) 주제가 중심이 되는 경우

주제가 중심이 되는 경우에서 '신학적 방향 설정'은 주제에 따라 성서 본문을 설정해야 하기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여기서 교육자는 삶의 문제로 제시한 '주제'를 강조한 나머지, 성서 본문을 주제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게르트 타이젠(Teißen, 2010, 103-104)은 성서 텍스트를 현대의 목적에 따라 "도구화(instrumentalisieren)"하는 위험이 없는지 질문한다. 그는 이 시대에 필요한 자극을 주려는 목적으로 성서 텍스트를 활용한다면, 성서만큼 대등한 가치를 가진 다른 텍스트에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것은 자칫 신앙교육이 '자기 세속화'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포이칙과 하르츠(1992, 88-94)는 주제가 중심이 되는 경우 신학적 방향 설정에서는 다음의 5가지 질문에 따라 체계화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그 주제는 어떤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가?"이다. 관련 주제가 공공 매체들이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특정한 사회적 조직들과 특정한 인물집단이 이 주제에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주제에 관한 토론은 어떤 문제 제기에서 첨예화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어떤 전문적인 인식들이 현실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이다. 베르그(1991, 23)에 따르면, 학문의 연구 결과들은 경험과 관련된 논의들에서 신앙과 삶의 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자는 신학적 진술을 하기 전, 주제와 관련된 인문과학

들과 사회과학들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어떤 신학적 통찰들이 현실적인 문제 제기들을 해석하고 해명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가?”이다.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은 성서 본문을 중심으로 신학적 통찰을 다룰 때 주로 주석과 성서학을 활용하나, 주제가 중심이 될 경우 조직신학을 먼저 참조하는 것이 주제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베게나스트(Wegenast, 1980, 146-152)는 주제와 관련된 신학적 통찰을 파악할 수 있는 조직신학의 네 가지 관점들을 제시하였다. ‘창조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신앙 안에 토대를 둔 인간소외에 관한 지식’, ‘신앙이 없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신앙’, ‘완성에 대한 희망’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로 포이칙과 하르츠(1992, 92)는 ‘낙태 문제’를 베게나스트가 제시한 조직신학적 기본표준들을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예) 다룰 주제 : 낙태 문제

- ① 창조에 대한 신앙 :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긍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생성되고 있는 생명체도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
- ②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신앙 안에 토대를 둔 인간소외에 관한 지식 : 설령 개인적 사정에 의해 임신중절을 위한 동기가 이해될만한 것일지라도, 임신 중절 수술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율법이 동료 인간에 대한 동정심 없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도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임신중절에 대한 거부는 아직은 생명에 대한 긍정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 ③ 신앙이 없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신앙 :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에는 이제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유효하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율법 아래에서 좌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세우지 않는다.

- ④ 완성에 대한 희망 : 예수를 따르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우리는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들을 만난다.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는 어머니가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편하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생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일도 포함된다. 우리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생아들이 멸시받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넷째, “이 주제의 신학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는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은 학습자가 신앙적 인물의 경험을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인물이 자기 삶을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들의 상황과 학습자의 상황을 비교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다르게 보는 방식들’을 학습하는 것이다. 주제와 관련된 성서 본문은 앞에서 제시했던 성서 본문이 중심이 되는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주석한다.

다섯째, “신학과 교회는 주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며, 다른 입장을 고려하는가?”이다. 특히 이 질문은 한국교회가 나(또는 교회, 교단)는 어떤 논증 방식이 익숙하고 낯선지, 또는 왜 상반된 입장을 가지는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타 교단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3) 교수학적 방향 설정

(1) 성서 본문이 중심이 되는 경우

교수학적 방향 설정’ 단계는 학습자가 어떤 경험을 만나도록 할 것인지 의도하는 것이다. ‘성서 본문이 중심이 되는 경우 교육자가 고려해야 할 것은, 학습자들이 성서 본문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공감하도록 할 것인가’이다.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으려면, 본문에 전승된 사건에서 학습자의 삶의 현실, 곧 경험과 만날 때 가능하다. 이것은 학습자

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경험과 경험이 만나도록 의도하는 것은 님코(Nipkow, 1982, 88)가 서술한 "경험의 순환", 즉 일상적 경험들과 기본 경험들, 또는 신앙의 경험들이 상호 관련된 순환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을 의도하는 교수학적 방향 설정을 위해 포이칙과 하르츠(1992, 32-34, 57-59)는 교육자가 파악할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교육자는 학습자가 처한 환경과 발달 심리적, 학습 심리적, 사회 심리적 전제조건들에 대한 자료들, 학습자와 관련된 경험 중에서 의미심장한 것들 등을 참고한다. 둘째, 교육자는 학습자들의 상황을 그려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과 본문의 의도들이 서로 만날 가능성을 탐색한다. 학습자가 처한 삶의 상황들이 그 본문과 만남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특히 학습자의 거주영역, 사회적 관계들, 부모(가족)의 입장들, 지역교회에 대한 관계 등이 그 만남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추론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상의 어떤 경험들, 혹은 어떤 신앙 경험들을 다룰 수 있는지 고려한다. 셋째, 만남에서 학습자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학습영역들(Lehrfelder)을 고려한다. 학습영역들은 크게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으로 파악하고,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상상, 갈등, 씨름 등) 등을 정리한다. 넷째, 미리 정해진 학습환경(상황)이 학습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지 학습 목표를 세우기 전에 살펴본다.

다음은 예시로 삭개오 이야기(눅19:1~10)를 청소년 대상으로 수업할 경우, 교수학적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표1〉 교수학적 방향설정 정리 예시 (성서본문이 중심이 되는 경우)

분야	하나님, 믿음 등에 대한 통찰들, 상상들 (인지적)	느낌들, 입장들 (정서적)	행동 가능성들 (실천적)
해명 정돈 특징 부여하기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를 받아주심. 질책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 시킴을 이해하기	나는 예수님보다 삭개오를 미워하는 여리고 사람들과 더 닮아있다고 느꼈다.	예수님처럼 삭개오와 같은 이를 이해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 찾기 (자기 성찰)
상상하기 개척하기	삭개오의 부인은 삭개오가 전 재산 반을 내어놓겠다고 했을 때 과연 찬성했을까? 과연 실현 가능할까?	재산이 솔직히 아깝다. 자본주의 사회에 돈은 정말 필요하다. 그럼, 삭개오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 고백했을까?	내가 삭개오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그 이유에 대해 나눔. 내 결정과 행동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지 나눔.
갈등 일으키는 것과 씨름하기	삭개오처럼 불의로 재산을 불리고, 동족을 배반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정의를 넘어서는 예수님 사랑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이를 현실에서 친하게 지내면 나도 왕따 당할까 겁난다.	예수님처럼 질책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해, 또는 왕따 당하는 이의 친구가 되는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 나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기(대안 모색)

(2) 주제가 중심이 되는 경우

주제가 중심이 되는 경우에서는 그 주제를 통해 ‘무엇을 공감하게 할 것인가?’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교수학적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손승남(2004, 142)에 따르면, 학습자의 공감을 활용한 학습이 효과가 높은 이유가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주제들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으로 활용되어 그 의미가 자신의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자는 ‘무엇을 공감하게 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 일상의 다양한 경험이 학습 주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어떤 학습법과 분위기, 어떤 해결 방식이 학습자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게 해석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다음으로 주제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는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Foitzik & Harz, 1992, 96).

- ① 이 주제의 어느 측면들이 학습자들에게 중요한가?
- ② 학습자들은 어떤 삶의 상황들과 경험영역들에서 이 주제와 만나는가?
- ③ 학습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가?
- ④ 이 주제의 개별적인 측면들에 대하여, 학습자들은 어떤 정서를 느낄 것으로 예상하는가?
- ⑤ 학습자들의 행동은 그 주제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가?

교육자는 수업에서 현재와 관련된 해결 모델들에 관해 함께 토론하면서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학습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들이 현존하는 일상적 경험과 기본적 경험을 신앙의 경험들과 연결하거나 대비시킬 수 있는지를 주목한다.

4) 교수학적 결정들

‘교수학적 방향 설정’을 학습자들의 공감과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핵심이 파악되었으면, 수업 과정을 구성하는 “특정한 학습 목표들”, “특정한 내용들”, “특정한 활동 형태들과 사회적 형태들”, “특정한 매체들”을 결정하고 정리한다. 이것은 사라 리틀(Little, 2003, 81)에 따르면, “의도성을 가진 교수 활동”으로 일련의 연속적인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착수하는 조직적인 초점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교육자가 의도한 목표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의도적 활동이 있고, 거기에 학습자가 어떤 경험이 일어날지 계획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으로 교육자와 학습자의 측면이 고려되는 활동을 의미한다(박은혜, 2012).

(1) 학습 목표들 : “수업에서 무엇이 달성되어야 하는가?”

한국 교회교육 현장에서 실행되는 학습 목표는 광범위 또는 추상적으로 제시되거나 학습자의 발달단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에서 나온 유치부 교재 한 과의 학습 목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유아가 되도록 돕습니다.”라고 되어있다(한국기독교교장로회 총회교육원, 2007, 69). 여기서 유아라는 단어 대신, 장년을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학습 목표가 된다. 즉, 이 학습 목표에는 유아의 삶의 경험이 고려되지 않아 학습 과정에서 성서의 경험과 만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페터슨(Peterßen, 1982, 89)에 따르면, ‘학습한다’라는 말은 경험을 근거로 행동 성향들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학습 목표를 어떤 성향이 특수한 상황에서 현실화하도록 그 어떤 성향을 수업 전체의 목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학습 목표는 수업 과정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표이므로, 수업의 도입, 전개, 절정, 결말에 각각의 부분 목표를 세워두면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포이츨과 하르츠(1992, 35-36)는 학습 목표를 세울 때 다음과 같이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 ① 학습자들과 함께 기존의 경험을 해명하고, 정돈하고, 특징을 부여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기를 원하는지, 혹은 반발을 일으키는 것들과 문제들에 몰두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한다.
- ② 학습 목표는 주로 인지적인가, 정서적인가, 혹은 실용적인가? 목표에서 주요 관심사는 주로 재생산인가, 재조직인가, 응용하는 것인가,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인가?
- ③ 선택된 학습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부분 목표들이 필요인가?
- ④ 어떤 순서로 개별적인 부분 목표들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결정하고 동시에 학습 과정을 확정한다. 그 순서를 정한 근거를 제시한다.

다음은 주제 중심의 교육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주제로 학습 목표와 부분 목표를 예시로 작성한 것이다.

- 학습 대상 : 청년
- 성서 본문 : 마태복음 20:29-34
- 학습 목표 :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나의 이해점 검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사회 모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표 2〉 학습 목표에 따른 부분 목표 작성 (주제가 중심인 경우)

조직신학적 주요 관점	단계	부분 목표
창조에 대한 신앙	도입	장애인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장애인도 창조하셨음을 믿는지 생각과 느낌을 공유한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신앙 안에 토대를 둔 인간소외에 관한 지식	전개	장애인들의 이동권 시위 뉴스 보도를 보며 지하철 시위에 비난하는 시민과 그들을 이해하는 시민 사이의 갈등에서 나는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고, 예수님은 어떤 입장인지 성서 본문을 통해 발견한다.
신앙 없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신앙	절정	장애인들의 시위방식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에 옳지 않으나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지 않았던 나, 우리 사회의 책임은 없는지 돌아본다.
완성에 대한 희망	결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와 교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고백한다.

(2) 학습 내용

학습 내용의 적절성 여부는 교육자가 학습자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고려했는가에 달려있다. 포이척과 하르츠(1992, 68)는 성서 본문 중심의 경우 교육자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학습자의 관점에서 성서 본문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유익한지, 내용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학습자를 위해 부가 설명이 필요한지, 보충하거나 대비시키기 위해 다른 성서 본문이 필요한지, 성서 외 학습 목표와 관련된 내용이 떠오르는지 등을 제시한다. 주제 중심의 경우에는 성서 본문 중심의 경우와

달리 성서의 한 본문만을 제시되기보다 주제에 따른 내용(예: 신문 기사, 전문가의 의견 등)도 다루어야 하기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자는 내용 선택을 위해 주제의 어떤 무게 중심이 학습 목표와 연결되어 분명해지는지, 그 무게 중심을 위해 어떤 현실적인 본문들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어떤 성서 본문들을 포함하면 되는지 등을 고려한다(Foitzik & Harz, 1992, 97).

(3) 활동 형태들 및 사회적 형태들

교육자는 선택된 목표들과 내용을 토대로 어떤 활동 형태 및 사회적 형태를 구성할 것인지 결정한다. 활동 형태란 교육적으로 의도된 교사의 행동 및 학생들의 행동으로,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교사와 학생 상호 간에 활동을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형태들은 수업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학습자 상호 간에 교사와 함께 어떻게 협력해야 하며, 수업이라는 사건 안에서 서로 어떻게 교체해야 하는지를 묘사한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 형태는 정면 또는 원형으로 앉은 전체 회의(Plenum) 형태, 주제별 및 작업별로 앉은 작업 그룹들, 짝과 함께 하는 작업, 개별 작업이 있다(Foitzik & Harz, 1992, 69). 교육자는 어떤 형태가 학습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지, 학습자의 연령대에 적합한지,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등을 점검한다.

(4) 매체

여기서 언급하는 매체는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수업에 계획적으로 투입되는 교수 자료, 학습자료, 활동자료를 말한다. 교육자는 학습 과정을 도입, 전개, 절정, 결말로 나누고, 각 과정의 부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체를 활용한다. 매체는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짓거나 흥미와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교육자는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에 치중하여 학습 목표와 상관없는 매체를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자는 어떤 매체를

어떤 학습 단계에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어떤 교수학적 기능이 있는지, 매체를 그대로 활용 또는 수정할 것인지, 시간은 충분한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는지 등을 점검한다. 매체는 부분 목표와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는 선택한 매체가 교육내용을 파악하는 데 효율을 높이고 최종 학습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지 점검한다.

5) 진행계획

진행계획 단계는 계획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것을 말한다. 한국 교회교육 현장에서 평신도 교사에게 이러한 진행계획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수업 중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예견하여 가능한 대안을 준비하고, 실제 학습상황에서 교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수업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평신도 교사를 대상으로 분반 교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교육할 경우, 또는 성년을 대상으로 목회자가 성서 교육을 할 경우, 등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진행계획을 작성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부분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은 교육자가 전체 수업 과정을 파악하고, 예기치 못한 수업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은 포이칙과 하르츠(1992, 76)가 제시한 진행계획표를 참고하여 필자가 간략하게 예시로 작성하였다.

학습 대상 : 초등 5학년 / 주제 영역 : 왕들의 이야기들

학습 목표 :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려운 상황들 안에서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동감할 수 있다.

〈표 3〉 진행계획표

부분 목표들	학습 내용 및 진행 과정	활동 형태	사회적 형태들	매체	소요 시간
* 도입 압박, 두려움을 느꼈던 나의 경험에 비추어 압박, 두려워하는 이의 입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1) 두 팔을 들고 있는 4살 소녀 사진 : 사 진에 대한 생각. 교사 질문 → “왜 이 어린 이는 손을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이렇게 손을 들었나요? 그때의 감정은?” → 학생들 경험 떠올리며, 추측하기 → 대 화 2) 소녀의 사연(난민촌 소녀로,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총으로 착각하여 어린 소녀가 두 려워 손을 든 장면)을 들려준 후, 달라진 생 각, 의견 나눔 → 압박에 대한 학생들의 개 인적 경험 떠올리기 → 압박받는 이의 입장에 대한 의견 나눔	경험 떠올 려나 누기 모둠 별대 화	모둠 별 'C' 형태 로 앞기	사진 자료 기사 내용	10분
중략					

4. 적용을 위한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교육자가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 수업 준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지만, 당장 한국교회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을 적용하기 위한 과제들을 과정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적인 만남’은 한국 교회교육 현장에 매우 필요한 수업 준비과정이다. 설교자가 말씀에 대한 만남과 자신의 성찰 없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듯이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획일적인 전달 방식에 익숙한 한국교회 교육자들이 학습자의 경험과 무관한 성서 내용을 축적하는 교육방식에서 벗어나려면, 교육자가 먼저 성서의 메시지를 자기 삶에 비추어 보고, 자기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자가 학습자에게 성서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성서적 경험과 만나게 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즉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이 무엇인지 알려면 교육자가 먼저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학적 방향 설정’에서는 본문에 대한 주석 활용과 신학적 연구 결과를 가지고 교육자의 말씀에 대한 주관적 해석, 또는 성서의 표면적 내용을 전달하는 성서 교육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주제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경우,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객관적 정보를 알기 위해 타 학문의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성서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비판적 분석과 판단,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한국 교인의 내세 지향적, 추상적이며 관념적, 개인주의적 신앙 자세를 현세 지향적, 구체적이며 실천적, 함께 살아가는 신앙적 자세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제와 관련된 타 학문과 연계는 성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서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 삶의 경험이 성서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자연스럽게 성서의 관점과 다른 이들의 삶의 경험과 의견, 다양한 관점들을 보게 한다. 이것은 나와 다른 의견과 관점을 배척하는 독단과 독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와 화합하는 사고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교수학적 방향 설정’에서는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교육방식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을 전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훈련에서 교육자는 학습자의 신앙발달에 대한 이해, 학습자 삶의 상황과 경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가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고, 학습자의 신앙적 관점이 어떠한지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교수학적 결정들’에서는 학습자의 삶의 경험과 관련된 학습 목표와 내용 구성, 매체를 설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기독교교육의 발전과 함께 한국교회는 각 교단에서 출판한 교재, 교육 활동자료, 교육프로그램 등 풍부한 교육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자료들이 경험과 관련된 신앙

교육적 의도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보다 목회자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목회자 기준에서 학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했던 교육은 신앙의 사실들과 교리 명제들을 가지고 이해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신앙교육은 종교적으로 인식될 뿐, 학습자의 실제적 삶과 연관되지 않으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Berg, 1991, 18, 21).

따라서 아무리 풍부한 교육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단순히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 활용하거나 이벤트식 교육 활동은 학습자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학습자에게 신앙교육의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이 '나의 경험'과 관련된 것이며, 내 삶에 '의미' 있는 것임을 학습자 자신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자는 다양한 교육자료들을 선정하기에 앞서 학습자가 경험과 관련한 신앙교육을 통해 나의 경험과 나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교육자료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진행계획' 작성은 교회학교 평신도 교사에게는 쉽지 않지만, 한편으로 전문성을 갖추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 리틀(2003, 87)은 "진정한" 교사가 되는 것은 특정한 주제 및 사람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 데 무엇이 최상의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진행계획 작성은 특정한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상의 결정들을 정리한 것이다. 평신도 교사에게 진행계획 작성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육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초안을 작성한 후 점차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훈련을 할 수 있다. 더 나은 진행계획을 위해 수업 후 교사회의를 통해 학습자의 반응과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가 자칫 신앙교육자로서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스마트(Smart, 1992, 231)가 주장했던 말, "교육하는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역할은 "기독교의 진리의 모든 원천을 학습자에게 공개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이 하는 일을 이해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 과정의 과제를 잘 수행하려면 개교회의 노력만이 아니라 각 교단,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자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성서 교수학적 방향 제시, 교단의 교회교육 정책과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재개발, 그리고 평신도 교사 및 교육목회자를 위한 교육 지원과 피드백을 통한 재개발 등이 필요하다. 즉, 신앙교육 발전을 위한 이론적 노력만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논의와 방안이 교회와 연계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노력 외에 향후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 학습자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학습자의 경험과 사고는 사회의 빠른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되고 있다. 우리가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을 지속하려면,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학습자 경험과 관련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나가는 말

한국교회의 변화와 발전이 곧 학습자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기에 경험과 관련한 신앙교육을 실행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독일 개신교 루터파 바이에른 노회가 편찬한 ‘경험과 관련된 종교 수업’의 준비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교회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들을 모색해 보았다.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한국교회의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자의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은, ‘나는 지난 삶을 어떻게 보았고(성찰) 오늘날 우리의 삶을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인지), 신앙의 관

점에서 어떤 경험에 기뻐하고, 공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희망하는지(정서), 그리고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했고, 무엇을 해야 하며, 왜 해야 하는지(행동)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교육이었다. 이 신앙교육은 성서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과 결정을 정답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삶의 어려움과 경험을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학습하는 것이었다. 즉,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은 하나의 교육 방법, 또는 수업 방식이 아니라 신앙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적용한 교육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스스로 성찰하고 성숙한 신앙공동체가 되어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해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이 정착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

‘경험과 관련된 신앙교육’이 한국 교회교육 현장에 올바른 정착을 돕기 위해 교단,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자 등 연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 연령별, 상황별, 사회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경험에 대한 데이터와 이해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이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도록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지 등 학습자 경험과 관련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태원 (1996). 한국교회의 교육 방법론 개혁에 관한 소고. **기독교교육논총**, 1, 55-76.
[Kim, T. W. (1996).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Education Methodology of the Korean Churc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 55-76.]
- 박은혜 (2012). 신앙교육을 위한 교육방법론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2, 357-383.
[Park, E. H. (2012). A Study of Educational Methodology for Faith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2, 357-383.]
- 손승남 (2004). **학습자 중심의 대안적 교수법**. 인천: 내일을 여는 책.
[Son, S. N. (2004). *Learner-centered alternative teaching method*. Incheon: A book that opens tomorrow.]
- 손원영 (2005).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Son, W. Y. (2005). *Reconceptualization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윤화석 (2014). 성경 교수학의 토대를 위한 성격 해석 방법론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40, 199-230.
[Yoon, H. S. (2014). Approach to the Bible-hermeneutical Methods for the Basis of the Biblesdidactic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0, 199-230.]
- 주인옥 (2008). 삶의 변화를 위한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한 탈비평적 해석과 적용. **기독교교육논총**, 18, 259-282.
- [Joo, I. O. (2008). Post-Critic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with Inductive Bible Study Method for Transform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8, 259-282.]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2007). **예수님 따라 한걸음. 유치부 교사용 교재**.
[Institute for Mission-Educ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2007). *One Step Along Jesus. Teacher's textbook for church school kindergarten*]
- Berg, H. K. (1991). *Ein Wort wie Feuer: Wege lebendiger Bibelauslegung*. München/Stuttgart: Kösel/Calwer Verlag.
- Edge, F. B. (1994). **효과적인 성서 교수법**. 노윤백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저 1956

출판)

[Edge, F. B. (1994). *Teaching for Results*. Translator : No, Y. B. Seoul: Lifebook.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56)]

Foitzik, K. & Harz, F. (1992). *Religionsunterricht Vorbereiten*, München: Claudius Verlag, (2. Auflage)

Fowler, J. W. (1992). **신앙의 단계들**. 이재은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원저 1981 출판)

[Fowler, J. W. (1992)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Translator : Lee, J. E. Seoul: Korean Christian Publishing Company.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81)]

H. Reiler(Hg.), (1980). *Das Leben bejahen, Aufgaben des Lebensschutzes im Zeichen der Notlagenindikation* - Verlautbarungen der EKD und der VELKD aus dem Jarh. Gütersloh.

Little, S. (2003). **기독교교육 교수방법론**.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원저 1983 출판)

[Little, S. (2003). *To set one's heart: Belief and Teaching in the church*. Translator : Sa, M. J. Seoul: pckbook.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83)]

Nipkow, K. E. (1982). *Grundfragen der Religionspädagogik, Band 3: Gemeinsam leben und glauben lernen*, Gütersloh.

Peterßen, W. H. (1982). *Handbuch der Unterrichtsplanung*, München.

Schneiders, S. M. (1999). *The revelatory Text: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as sacred scripture*. Collegeville, Minnesota : The Liturgical Press.

Smart, J. D. (1992).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원저 1954 출판)

[Smart, J. D. (1992).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Translator : Jang, Y. C. Seoul: Korea Council of Christian Education.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54)]

Teissen, G. (2010). **성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원석 & 손성현 역. 서울: 동연. (원저 2003 출판)

[Teissen, G. (2010). *To motivate the Bible*. Translator : Go, W. S & Son, S. H.

Seoul: Dong-Yeon.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03).]

Wegenast, K. (1980). *Der Religionsunterricht in der Sekundarstufe I*, Gütersloh.

Abstract

A Study on the Tasks for the Preparation Process and Application of Faith Education Related to Experience

Kyoung-mi, Han

Adjunct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Hanshin University

Faith education focuses on 'changing the direction of life' that pursues the life of Christ. This is possible only when the message of the Bible is embodied in life, not by accumulating biblical knowledge. Today, however, faith education does not allow biblical messages to be embodied in life. This is the result of focusing on knowing the Bible itself, instead of guiding the faith education to meet the Bible and the experience of human life. Church education emphasized the inner faith of individuals rather than changes in life and practice, preparing for the afterlife, and mostly for the training and quantitative growth of the church. As a result, in the COVID-19 era, Protestants showed an immature appearance that only cared about the safety of the church, and social trust in Protestants was lost. Therefore, faith education should educate what life of the Bible and the experiences of the learner will meet and respond to God in order for the Bible's message to be realized in life. I tried to find out how to prepare for this faith education in detail. So I would like to look at "The preparation process for religious classes related to experience" compiled by the German Protestant Lutheran Bavarian Presbyterian Church and present tasks for application to the Korean Church. Preparation for experience-related religious classes consists of five courses. It is a personal meeting, a theological orientation, a pedagogical

orientation, a pedagogical decision, and a summary of the progress plan. The main purpose of this process is to learn how biblical believers interpreted their experiences in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faith and tried to overcome the problem. Faith education related to experience deals with the essence of faith education, not one of the Bible teaching methods. Although the field of education is in the social change of expanding from the real world to the virtual world, the essential nature of faith education cannot change. Therefore, research and application of faith education related to experience in Korean churches will help the biblical message to be embodied in Christian life.

《 **Keywords** 》

Changing the direction of life, Encounter with Biblical Experience, Faith education, Class preparation, Bible Didactics.

- 투고접수일 : 2022년 5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6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6월 29일